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홍보클럽 장애인 위한 삼계탕 무료중식 제공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원)은 지난 12일 김제지평선홍보클럽(회장 이영애)의 후원과 봉사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시장애인체육관, 김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단체 이용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 200명에게 삼계탕 무료중식을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지평선홍보클럽 회원들이 초복을 맞이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과 과일, 떡 등을 대접하였으며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들을 위로하며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당면영농현장교육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에서는 7월 3일부터 11일까지 당면영농현장교육을 실시하여 10개 마을 1,550명이 참석하여 농가들의 당면 영농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성황리에 끝냈다. 이번 교육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30명의 농촌지도사가 총동원돼 농업인에 대한 질 좋은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농업인과 한 자리에 모여 좌담 형식의 상호토론을 통해 즉석에서 해결하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마을회관이나 모정으로 직접 찾아가 벼농사 병해충방제와 대체작목으로 많이 비추어 콩·고추·참깨등의 재배관리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속 시원한 답변을 통해 농업인들로부터 영농활용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백산면, 선진지 견학 다녀와

김제시 백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자치지역 탐방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공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과 각 사회단체장, 박두기 시의원과 백산면 직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시 선진면 주민자치센터와 삼교관광단지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던 당진시 선진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신평면 원곡회 주민자치위원장의 전반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상황과 일반현황 및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 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로

군, 2025년 인구 15만명 목표... 소득·삶의 질 높은 도시로 도약 다짐

완주군이 오는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인 '완주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특히 인구 15만명이란 양적 성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버금가는 도시기반 확충,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 등의 중점과제도 추진된다. 13일 완주군은 '결어온 100년, 다함께 열어나가는 새로운 100년 완주시(市) 비전'을 선포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은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이자,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제2의 성장을 통한 도시 격상과 지역민의 행복 제고에 나선다는 것이다. 2025년까지의 완주군 비전 목표는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다. 우선 완주군은 인구절벽 등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시 승격 요건인 15만 인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만4,000명(5,600세대)의 혁신도시 2.0 △국가산단 및 기업유치 등에 따른 미니복합타운 1.2 단계 조성(1단계 8,760명, 2단계 1만6,000명) △삼봉 웰빙시티(1만4,959명) 및 복합행정타운(4,663명) 등 도시기능의 집적화 △귀농귀촌(1만7,010명) 등의 계획인구 유치를 통해 59,272명의 사회적 증가(계획인구×60%)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여기에 자연적 증가 3,032명을 더하면, 2025년경 완주군 인구는 15만1,240명을 기록하며 시 승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무엇보다 완주군은 양적 인구 성장



완주군이 오는 2025년 인구 15만명 달성을 통해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인 '완주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만으로는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가 어렵다고 판단, △30만 규모의 도시기반을 갖춘 완주시 △50만 대도시처럼 삶의 질이 높은 완주시 △지구보다 더 소득 높은 완주시 △균형발전으로 고무 잘 사는 완주시 등의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기반 구축으로는 완주산단~새만금신항간 철도망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지역교통망 개선, 완주소방서 등 공공기관 유치, 구도심(삼례·봉동)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 등이 이뤄진다. 또한 3대 가족친화도시(아동친화+여성친화+고령친화) 지정, 지역문화지구 시 단위 10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대한민국 축곡산지 조성, 도시농촌형 공동체복지 육성 등을 통해 대도시에 버금가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그리고 2025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DP) 전국 10위 등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산단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농생명 4차산업 육성, 공공경제 프로젝트 추진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산 6개 면은 힐링거점 지역인 관광휴양권역으로, 삼관·소양·구이는 도농 연계의 전원레저구역을 각각 균형 발전시키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금까지 이뤄온 완주군의 무한한 성장세를 주민과 함께 극대화해 2025년까지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시'를 목표로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실천하고 매진하겠다"며 "완주군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논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시동

시설·장비 지원 통해 14개소 육성

김제시는 지난 '2009년부터 논 농업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50ha 이상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오고 있다. 들녘경영체는 논 농업에 규모의 경제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노동력, 농기계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품종 통일부터 방제 출하 등 전과정 공동 농업경영을 추구하는 모델로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공동 농업경영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그간 들녘경영체 14개소(4,835ha)를 육성했다. 올해부터 기존에 조직화된 들녘경영체가 규모화로 발생한 유휴자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성장 모델로 견인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들녘경영체는 공역농협과 예쿠스영농조합법인이 대 상이다. 이들 들녘경영체는 3년에 걸쳐 모두

20억원이 국고40%, 지방비40%, 자부담20%, 조건으로 지원된다. 유춘기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은 생산다각화와 생산이후 사업범위 확장을 과잉공급 기초축에서 들녘경영체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 해 버나 다른 작물을 가금·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 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농촌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교실 개최

현대차 전주공장,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등 실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과 전북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정옥 이하 전북 안전련)이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후원하는 2017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교실이 13일 개막했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개막식에는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과 이정옥 전북 안전련 대표, 김승수 전주시장, 고희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북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교통안전 박람회와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오는 15일까지 3일 간 열릴 예정인 이번 교통안전교실은 친숙한 로보카 폴리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전북지역 어린이들에게 체험형 교통안전 박람회를 열어줌으로써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교통안전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전북지역 어린이 1,260명과 학부모 등 수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이번 교통안전교실에서

현대자동차와 전북 안전련은 자정거 안전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승·하차 및 사각지대 안전교육 등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최근 수년 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키즈현대 (http://kids.hyundai.com)'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 안전과 관련한 교육 영상, 안전 가이드, 웹툰, 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안전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공장 노사 주도 아래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안전색 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가 안전한 전라북도 만들기 사업에도 적극 나서 사회공헌기금 1억8천만원을 쾌척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전념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여름철 재해대비 위험수목 정비사업 진행

완주군이 여름철 재해를 대비해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13일 완주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강풍, 태풍 등으로 넘어지는 나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올 연초부터 도시녹지관리단, 페트볼사업단을 운영해 주택가와 도로변, 제방도로 중심으로 위험수목을 집중 점검하고, 재해위험수목 1,000여주에 대해 제거작업을 완료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또 올해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 내 가로수와 노거수 등을 관리, 위험요소가 되는 고사목 제거와 가지치기를 시행했다. 이번엔 추진하는 재해위험 수목정비 사업에 예방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올 연초부터 도시녹지관리단, 페트볼사업단을 운영해 주택가와 도로변, 제방도로 중심으로 위험수목을 집중 점검하고, 재해위험수목 1,000여주에 대해 제거작업을 완료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진안고원 고향학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